

‘어게인’ 나주극장... 미디어아트 무한한 가능성을 그린다

나주시, 문화재생산업 진행... ‘나주극장’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이성웅·폴 바주카·임용현 작품 전시... 7월7일까지 나빌레라문화센터

나주극장은 1980년대까지 문화, 예술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문화시설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되다 안타깝게 문을 닫았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나주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나주천 일대에 건립됐으며 소주공장, 잠사(누에)공장 등 산업시설도 하천부지에 지어졌다. 특히 인근의 나주잠사(蠶少)는 지난 2017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활해 지역민과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나주시는 나주극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문화재생산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현재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미디어아트 시범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어게인’ (AGAIN)은 나주극장의 ‘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 ‘천년 묵사골 나주’라는 문화와 전통, 역사성과 창조성을 감안한 전시라는 뜻도 깃들여 있다.

장현우 나주시문화예술특화사업단장은 “나주극장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며 “나주극장은 향후 미디어관으로 활용하고 정미소는 생활문화, 나빌레라센터는 수준 높은 전시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3인 3색 작가들(이성웅, 폴 바주카, 임용현) 결합체인 미디어아트 그룹 ‘빅풋’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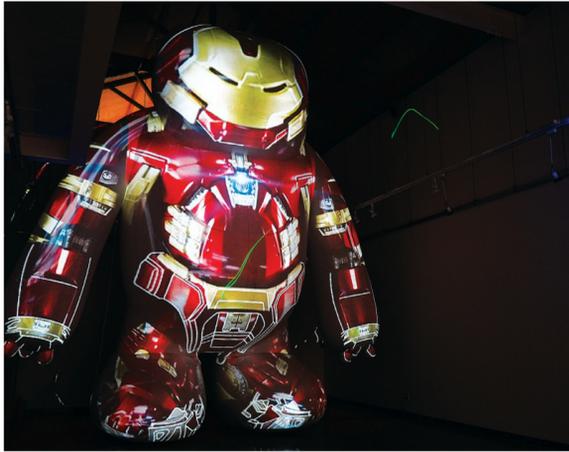


왼쪽부터 폴 바주카, 임용현, 이성웅 작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빅풋’은 미지의 생명체를 말하지만, 예술적인 관점에서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훈 큐레이터는 “이번 프로그램은 3인 3색의 작가들이 모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창작된 작품을 선보인다는 데 특징이 있다”며 “미디어아트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문화재생산업 나주극장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저마다 작품을 통해 장소에 대한 해석을 풀어내고 있다. 가동, 나동, 1-2층의 공간을 각자의 작품에 맞게 구현했다.



빅풋의 ‘빅풋’은 미지의 생명체를 매개로 미디어가 가진 긍정적 가능성과 희망을 담은 작품이다.

임용현 작가는 ‘Delight’, ‘희망고문’, ‘창밖에는 비가 오는데’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런던예술대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 그룹전에 참여했다.

그는 “코카콜라 영상에 땀방울을 한 ‘Delight’는 자본주의가 상징하는 ‘콜라’의 청량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먼저 소비하는 행태에 주목한 작품이며 ‘희망고문’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주는 지연된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Water drop-part’, ‘유토피아’ 등을 전시 중인 이성웅 작가는 사운드와 미디어 결합에 주목했다. 조선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한 이후 40여회 그룹 초

대전에 참여했다. 그는 “유토피아를 별로 상징해 구현한 작품은 상상이나 존재할 법한 이상향을 해석한 것”이라면서 “3명 작가의 결합체인 ‘빅풋’은 ‘따로 또 같이’처럼 개인의 작업이지만 함께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자음악 1세대로 지금까지 사운드 작업을 30년간 해온 폴 바주카는 ‘갈망’, ‘변태’, ‘사랑은 모든 것’을 선보이고 있다. 2024년 스위스에서 개인 음반을 발표할 데서 보드 영상과 사운드에 대한 열정을 짐작할 수 있다.

폴 바주카는 “‘변태’라는 작품에는 재개발 관련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예전에 지어진 건물은 새



〈나주시 문화예술특화사업단 제공〉

건물이 들어서면 지워버리듯, 현재의 새 건물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라는 뜻을 투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사전프로그램을 실제처럼 실증하기 위해 분전으로 마련됐다. 공간 조성 후 지적될 수 있는 미흡한 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다.

한편 박경현 문화예술특화팀장은 “이번 ‘어게인’전은 조형, 영상, 사운드 중심의 미디어아트를 상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전시를 통해 향후 운영 계획 등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요일, 쉼요일’

오늘 무안 남악서 ‘봄 Love is’ 6개월간 13개 지역 문화 향연

전남도 내 13개 지역 곳곳에 펼쳐지는 문화 향연.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요일, 쉼요일’ 행사를 도내 13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지난 10일 나주에서 사업 시작을 알리는 킷오프 행사 ‘미리열림’을 필두로 향후 6개월간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영광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영광: 추억산책’, 30일 강진: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로 강진을 영광로3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무안 ‘봄 Love is’라는 주제로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프로그램도 이목을 끈다. 전 프로그램 오후 6시부터 진행.

‘음악이 흐르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오후 5시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리는 공연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6월 1일 신안 ‘안좌서 산다’, 같은 날 보성 ‘그때 그 시절 추억 소환, 문화가 있는 날 상설 락’을 비롯해 같은 날 곡성, 구례, 고흥(고흥군청 문화광장), 나주(빛가람 호수공원), 장흥



지난 10일 나주에서 펼쳐진 킷오프 행사 ‘미리열림’에서 ‘동양고주파’ 팀이 공연을 펼치는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공연도 각각 예정돼 있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전남도 지방극장에서 다채로운 색깔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내 13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인 만큼, 타 지역 행사를 즐기기 위해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문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승천하는 용틀임 ‘오월 광주’

정미숙 시인 ‘용틀임’ 전, 31일까지 세종 여성플라자

고흥 출신 정미숙 시인은 지난 2022년 세 번째 시집 ‘수제튀김 할 때마다 새를 생각해’를 펴냈다. 2000년 ‘시와정신’으로 등단한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쳐온 시인은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정미숙 시인이 5번째 개인전을 세종에서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다 세종으로 이주한 정 작가는 지난 2021년 세종시 송담관리전시관에서 ‘푸른 세종’ 전시를 가진 바 있다. 세종 여성 플라자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용틀임’.

올해가 용의해라 신년에 열렸을 법도 하지만 5월에 전시가 개최되는 것은 깊은 의미가 함의돼 있다. 작가는 세종시 정부청사의 용의 형상을 모티브로 모두 25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작가는 광주의 오월을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인 용틀임으로 구현했다. 그날의 송고한 정신이 계승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화폭에 투영한 것. 색을 칠하고 또 칠해 표현한 용틀임은 움직임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가온다. 당시 희상당했던 이들의 송고한 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와 그들의 사랑을 구현한 것이다. 역동적 이면서도 강렬한 색채와 추상적인 이미지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작품 ‘꽃비’가 주는 화사함과 몽환적인 분위기는 봄날의 아련한 꿈 내지는 슬픔을 조정화한다. 작품은 ‘꽃비’일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까만 나뭇가지위로 흘



‘용틀임’

날리듯 내리는 꽃잎들은 작금의 봄날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정미숙 작가는 “광주에서 세종으로 이주해 작품 활동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광주의 추억과 풍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전시는 서로 닮은 듯 다른 두 도시가 오월정신으로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에서 만나는 ‘남성창극 살로메’

30~31일 ACC 예술극장 극장1

1891년 오스카 와일드가 쓴 ‘살로메’는 신약성경 속 일부 이야기를 모티브로 다룬 희곡이다. 욕망적인 내용 등은 퇴폐적이기도 하지만 음악적 현란함이 세기말을 연상케한다는 평도 있다.

남성 목소리로 ‘살로메’를 풀어낸 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작품은 세례자 요한을 사랑한 공주 살로메와 이를 둘러싼 왕가의 욕망을 그려낸 막장 드라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남성창극 살로메’를 30일·31일(오수 7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친다.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 두 번째 작품인 이번 ‘남성창극 살로메’는 고선웅 작가가 각색, 김시화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다.

특히 인기 남성 창극배우인 김준수를 비롯해 유태평양, 서의철, 고준석, 정승준, 김도완, 이정원이 무대에 오르며 첼로, 피리, 태평소, 생황, 가야금,



‘남성창극 살로메’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타악기 등 7명 연주자들이 라이브 사운드를 펼칠 예정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이 ‘남성창극 살로메’의 의상디자이너를 맡았다는 사실도 이목을 끈다. 인물 성격은 물론 어떻게 시공간을 아울러 컨셉으로 구현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시화 연출은 “작품의 모든 인물을 남성으로 구성한 것은 실험적인 방편으로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취향이 공존하는 작금의 풍토에서 대중성과 창

작성을 고려한 시도”라고 밝혔다.

조정호 문화예술사업팀장은 “이번 공연은 국내의 우수 공연을 발굴해 초청하는 대중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여성 창극과는 다른 남성 창극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4만원이며, ACCF 누리집에서 예매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故 박효선 연극정신 계승 ‘연극상’ 작품 공모

시대정신 반영 작품 대상, 7월 19일까지 접수

1980년 도청 행정 지도부 홍보부장이었던 ‘오월 광대’故 박효선의 연극정신을 계승하는 제2회 ‘박효선 연극상’이 작품을 공모한다.

박효선연극상운영위원회(위원장 오수성·김창우)와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제2회 ‘박효선 연극상’ 수상작을 공모한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연극 작품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올해 7월 15일까지 조연·재연작이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작에는 500만 원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9월 초 한국민족극협회 홈페이지 등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2022년 1회 수상작으로는 나무 닭움직임연구소의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었나’

가 선정됐으며 격년으로 작품을 선정한다.

박효선은 1983년 극단 토박이를 창단해 5·18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금희의 오월’, ‘모란꽃’, ‘정실홍실’ 등을 창작한 연출가, 작가, 배우다. 특히 그가 직접 쓰고 연출한 ‘금희의 오월’은 ‘한국 현대 연극 대표 40선’에 선정됐으며 1996년 북미주 7개 도시 순회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박효선연극상 운영위 송은정은 “오월을 불꽃처럼 노래했던 박효선의 시대정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박효선 연극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동시대 우리 삶, 역사를 관통하고 특유의 공연미학이 깃든 많은 작품이 투고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